

보도시점 2025. 9. 2.(화) 11:30 배포 2025. 9. 2.(화) 11:00

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 9월 중 성수품 물가안정 등 추석대책 발표 예정

-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신요금 할인 등으로 1.7% 기록
- 강원도 가뭄 대응 총력, 추석 성수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·가격 안정화 노력
- 9월에도 수요가 확대되는 품목 중심으로 가공식품 할인행사 지속 예정

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.2(화) 10:00 「물가관계차관회의*」를 주재해 ①8월 소비자물가 동향, ②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.

* 참석부처 : 기재부(주재), 농식품부, 해수부, 통계청

이 차관은 “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신요금 할인 등으로 1.7%를 기록했지만,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세로 먹거리 가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.”고 평가했다. 또한, “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, 주요 성수품 수급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, 비축물량 공급, 할인지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했다.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9월 중 성수품 물가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.

이 차관은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등 강원도 지역 급수난에도 불구하고, 배추·감자 등 고랭지작물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. 배추는 잔여 정부 가용물량(1.7만톤, 일 200~300톤) 공급과 함께 병해충 방제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.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 출하를 확대(일 50→60톤)하고, 수입(1천톤)과 가을감자 수매비축(1천톤)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축산물의 경우, 소고기는 한우자조금·한우협회·농협 등과 협력해 한우를 30~50% 저렴하게 판매하는 ‘소(牛)프라이즈 할인행사(8.25~9.5일)’를 진행중이며,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를 16일까지

진행한다. 계란은 가격·수급안정을 위해 대형마트와 간담회 개최 등 긴밀히 소통하고, 계란 생산·유통단체 등과 협업체 할인행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. 고등어 등 수산물도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(7~12월, 1만톤), 비축 수산물 방출, 할인행사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

가공식품의 경우, 7~8월에 식품·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, 과자 등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할인을 진행한 데 이어, 9월에도 추석에 대비해 업계와 협력해 명절에 수요가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.

기획재정부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임혜영 (044-215-2770) 연정은 (je0903@korea.kr)
	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	책임자 담당자	팀 장 사무관	최정빈 (044-215-2931) 김문수 (sin20219@korea.kr)
농림축산식품부	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배민식 (044-201-2681) 김성만 (bomipapa@mail.go.kr)
	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이연섭 (044-201-2336) 이재승 (yijaes3@korea.kr)
해양수산부	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류선형 (044-200-5440) 장석준 (denti00@korea.kr)
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 사무관	정기원 (044-200-5610) 박 한 (hpark0830@korea.kr) 이예진 (yj1003@korea.kr)